

나주혁신도시 응급환자 치료 시설 없어 큰 불편

이전 공공기관 노조협 25일 광주시와 간담회 대학병원·학교·교통망 확충 등 5개 대책 요구

혁신도시가 착공 1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까지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위급환자를 치료할 의료시설이 없어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편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등 기업들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시설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와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는 오는 25일 오전 간담회를 갖는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15개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참석해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전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정주 여건개선과 혁신도

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는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족한 의료시설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 5건의 사전 건의사항 내용으로는 ▲응급환자 발생시 비상 운송 시스템 마련 ▲혁신도시 내에 대학병원 분원 또는 정기출장검진 시행방안 ▲혁신도시·광주 동일 생활권을 위한 편리한 교통망 확충 ▲혁신도시 거주민 자녀의 광주 중·고등학교 진학가능 방안 ▲이주직원 배우자 지원(공무원 배우자 광주지역 배치) 등이다.

이전 공공기관 노조협의회가 응급환자

발생시 비상 운송 시스템 마련과 혁신도시 내 대학병원 분원 또는 정기출장검진 시행방안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혁신도시에 이를 충족할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31일 기준 빛가람혁신도시 내 병·의원은 ▲소아과 2곳 ▲내과 3곳 ▲이비인후과 1곳 ▲피부·성형외과 2곳 ▲한의원 3곳 ▲치과 4곳 등 17개로 종합병원 등 응급환자를 수용할 의료시설 자체가 없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 상당수가 '기러기' 생활을 하는 탓에 개인 차량이 없는 경우가 많다. 위급상황 시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 등 응급실까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동신대 한방병원과 종합병원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오는 2018년과 2019

년이나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 이 때문에 노조협의회 측은 광주지역 대학병원 등으로 빠르게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비상운송시스템'은 물론, '대학병원 분원'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 조성사업과 맞물려 빛가람혁신도시와 인근 산단으로 입주하는 기업이 속속 늘어나면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주택이나 자녀의 학교 문제보다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시설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혼자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아 하루빨리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국내 방송제작 근로환경 개선 나선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1일 서울서 전문가 집담회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직 무대행 강만석)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 16층 컨퍼런스룸에서 '올' 없는 방송제작 근로환경을 주제로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담회는 과도한 노동시간, 낮은 보수 등 열악한 국내 방송제작 근로자들의 업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국내 방송제작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광중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맡으며, 김도연 국민대 교수, 송용환 성공회대 외래교수, 이영대 변호사(법무법인 수호)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독립제작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들도 참석해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일수 조경감독과 윤대영 SBS A&T 촬영감독, 이항립 작가(방송작가유니온)

최영기 전 한국독립PD협회장은 현장에서 겪은 국내 방송제작 시장의 근로실상을 전하고, 배대식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국내 독립제작사의 현실을 알릴 예정이다.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팀장은 "과도한 노동시간, 인권 침해 등 방송제작 근로자들의 열악한 업무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최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집담회가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홈페이지(www.kocca.kr)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전신청(https://onoffmix.com/event/113268) 또는 현장 등록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교육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원장 서석진)은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2017년도 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KCA가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6월 16일 공고 후 인증을 신청한 전국 325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현장실사와 권역별 인증심사단 심사 및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KCA는 그동안 나주혁신도시에 소재한 본사 및 전국 10개 지방본부에서 초·중·고·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전파교실'과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인 'Radio Wave Supporter'(전파특정 기술지원) 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등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펼쳐왔다.

서석진 원장은 "전파체험 자유학기제를 통한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은 계기로 중·고·대학생들에게 IT분야의 이론과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통합형 인재 육성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로체험을 희망하는 학교 또는 단체는 교육부 진로체험 지원 사이트인 꿈길(www.ggoomggi.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KCA 검사기획팀(061-350-15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은경기자 ej6621@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지난 18일 aT 임직원으로 구성된 기부은행 돌봄 봉사단 1기 회원들이 발대식과 기초교육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T 제공>

aT,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 봉사단 1기 발대식

전국 단위 돌봄 봉사활동

노인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는 지난 18일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 봉사단 1기 발대식'을 열었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봉사시간을 포인트로 적립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하거나 65세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는 제도다.

봉사활동 시간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이트를 통해 누적·관리된다.

aT 임직원 60여명으로 구성된 돌봄 봉사단이 전국 기부은행을 통해 농어촌 어르신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첫 시작점인 이번 발대식에서 단원들은 활동내용과 유의 사항에 대한 교육도 받았다.

aT 돌봄 봉사단은 앞으로 전국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또 이번 1기 봉사단을 시작으로 향후 대학생과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하는 등 봉사단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유성 aT 부사장은 "aT는 기부은행을 최초로 도입한 공공기관으로서 복지사각지대 노인에 대한 돌봄 활동을 선도적으로 실행하고자 한다"며 "돌봄이 필요한 전국 각지의 어르신께 감성지원 등 여건에 맞는 돌봄 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겨울배추·무 등 재배의향 3% 증가

공급 과잉 우려 재배면적 조절 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

겨울배추, 월동무, 조생양파 등 겨울 채소 재배 과잉이 우려되어 이에 따른 재배면적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산 겨울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9%, 평년보다는 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금년 초 출하기와 최근 정식기의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된 재배(의향)면적에 평년 단수(단위면적당 수확량)를 적용하면 2017년산 겨울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23% 내외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산 월동무 재배(의향)면적도

작년보다 7~10%, 평년보다 1~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7년산 월동무 생산량은 전년보다 30% 내외 증가할 전망이다. KREI는 겨울배추, 월동무 생산량의 과잉이 우려된다며, 주산지(해남, 제주 등)에서의 과잉 및 정식면적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산 양파의 경우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보다 3~6%, 평년보다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생양파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3%, 평년보다 26%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으며, 생산량은 금년과 평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2017년산 저장양파 출고가 지연되고 있어 2018년산 조생양파 출하기 가격은 낮아질 우려가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정승 농어촌공사 사장 재해대비 현장 점검

정승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 18일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를 방문해 재해대비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번에 점검하는 예당저수지는 저수량 4710만t의 중부권 최대 농업용 저수지다. 농어촌공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가 증가, 농경지 침수로 인한 하류지역 인명·재산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물량이 확장과 저수지 제방보강공사

를 진행 중이다. 또 깨끗한 농어촌 우수 확보를 위한 친수공간 2ha를 개발하고 녹조제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승 사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호우, 고온으로 인한 수온 상승 등이 일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농어촌 공간을 생태적·환경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양,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락히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10평
- 2012년 신축, 전망 좋음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시세/감정가 12억
- 매매 - 7억 8000만원
- 용자 3억 3000만원 포함

비금도, 팟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비금도 안에 있는 단독섬, 무인도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목포에서 50분 (쾌속선)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있음
- 장기투자 가치 최고
- 매 14억 (현금2억+부동산과 교환 가능)

전원주택, 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9000만원(조정가)

나주, ㅅㅅ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5200만원 (조정가)

주인직매 010-3605-5000